



2025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

금번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 제약/바이오 산업이 개선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,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고환율로 인한 R&D 비용 부담이 높아졌음을 확인. 다만, 2025년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노보의 세마글루타이드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, 관련 여파에 주목 및 투자 심리 개선 전망.

◎ 키움증권 주관 제약/바이오 2025년 산업 전망 설문조사 실시

>> 당사 주관 2024/12/17~12/31일간 진행되었으며, 총 103명이 조사에 참여. 제약, 바이오텍, 의료기기 등 산업 종사자가 63%로 대부분을 차지. 기관 매니저, VC, PE 등 금융업 종사자 19%. 대표이사 등 C-Level 42%, 임원 25%, 실무 담당자 17% 응답.

◎ 올해 희망찬 기대보단 높아진 자금난 우려

>> 제약/바이오 산업에 대해 **2025년 개선된다는 응답이 33%로** 2024년 설문조사에서 47.2% 응답 비율보다 **줄어들었음**. 반면, 2024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44.7%로 2024년 응답률 32.6% 보다 증가.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인은 기술 수출 증가 예상을 꼽았음. **기술 수출 논의 중인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** 가장 많았음.

>>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는 **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적**하였으며, 지난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 관련 응답이 50건에서 올해 67건으로 증가. 특히, **고환율 부담** 응답 건 수가 35건으로 지난해 11건 대비 급증. 신약의 해외 진출을 염두해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주로 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환율로 인한 R&D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음. 업계내 구조조정이 2025년에도 계속된다는 응답은 87%로 여전히 높아 **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**을 시사.

>> R&D 투자 확대 계획 관련 질문에는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응답률(42%)이 가장 높았음.

◎ 당뇨/비만과 표적단백질 분해 및 ADC 등을 유망 분야로 주목

>> **당뇨/비만과 뇌 질환, 종양학** 분야 순으로 가장 높은 관심. 신약 모달리티는 **표적 단백질 분해 및 ADC/이중항체** 등 주목.

>> 5년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분야에 대해서도 **ADC, 이중항체, TPD 등 플랫폼**을 가장 높게 꼽았음. 참고로 이중 정밀 표적 단백질 분해(TPD) 기술을 보유한 오름테라퓨틱스는 BMS 및 버텍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, '25.1월 수요예측 및 2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음.

◎ 시사점 및 전망.

>>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바이오텍의 자금조달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.

고환율이 R&D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, 바이오텍의 보유 자금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.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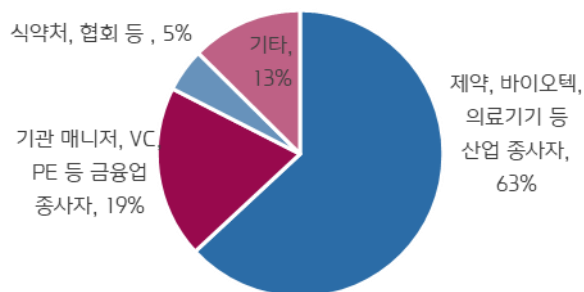
(법차손) 리스크도 여전히 발목. ¶ 법차손이 자기자본 50%를 3년간 2회 이상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
한편, 대외 금리 인하 소식 지연 등으로 여전히 자금 조달 환경은 어려우며, 올해에도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 소식은
이어질 것으로 예상.

>> 긍정적인 점은 올해 **제약/바이오 관련 투자를 확대**하겠다는 응답률이 46%로 가장 높았으며, '25년 투자 트렌드의 가장
큰 변화로 **M&A 증가 및 투자 심리 개선**을 꼽았음.

>> 제약/바이오 산업에 M&A 증가와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로는 릴리의 **경구용 비만 치료제 Orforglipron 3상** 결과 발표와 노보 노디스크의 **세마글루타이드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** 결과 발표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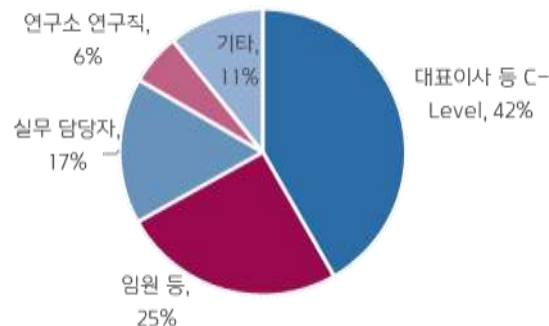
만약 성공한다면, 베타 아밀로이드 타겟 항체가 아닌 첫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GLP-1 작용제 수요가 대폭 확장되며,
성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. 경구제형의 편의성을 해결하면서, 만성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분야로까지 적응증이
확장된다면, 제약/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.

응답자 해당 직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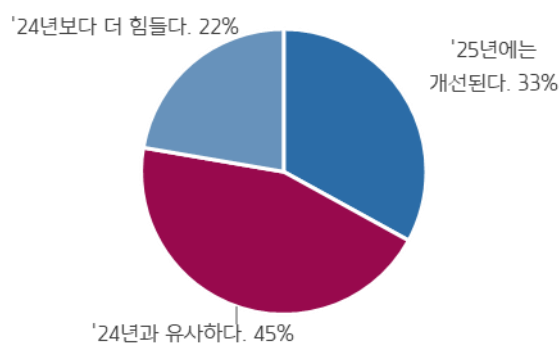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응답자의 직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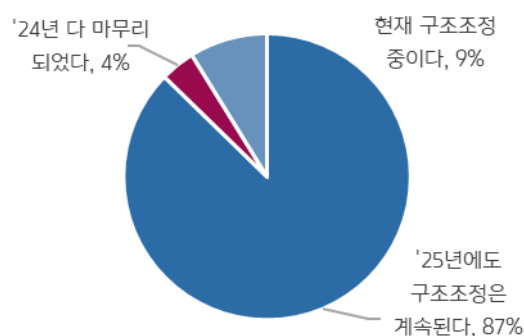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업종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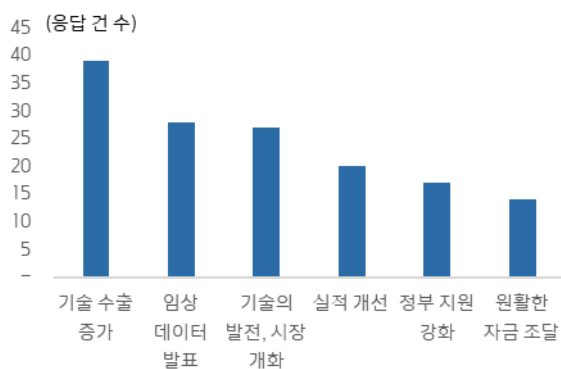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구조조정 진행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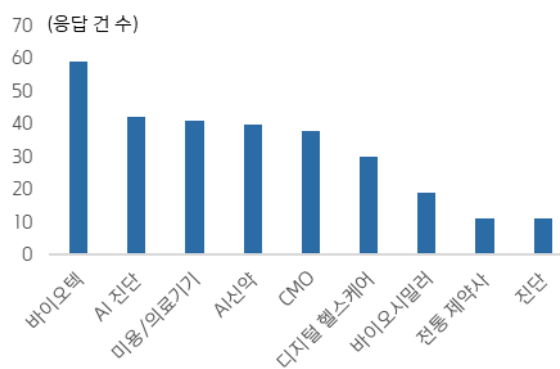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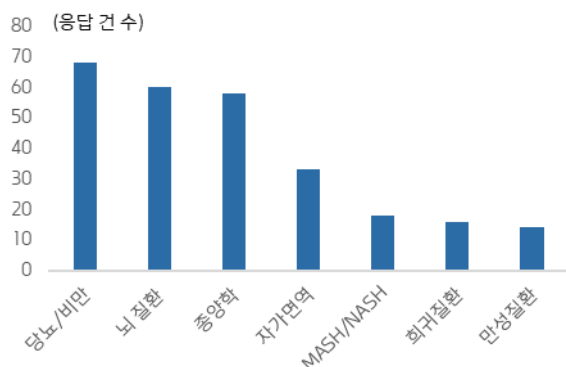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유망한 Sub-Secto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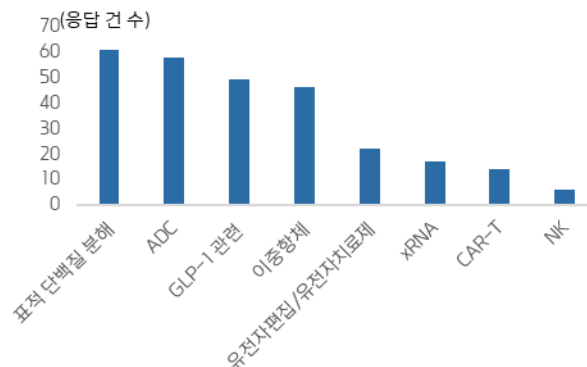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기대하는 질환 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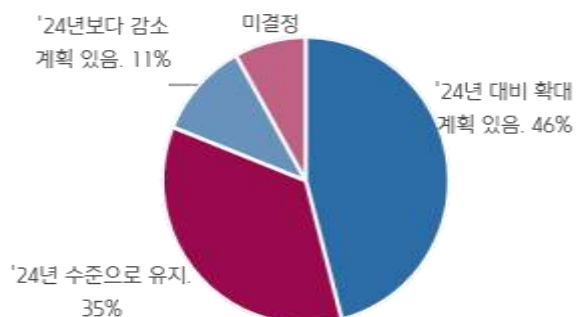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주목하는 신약 모달리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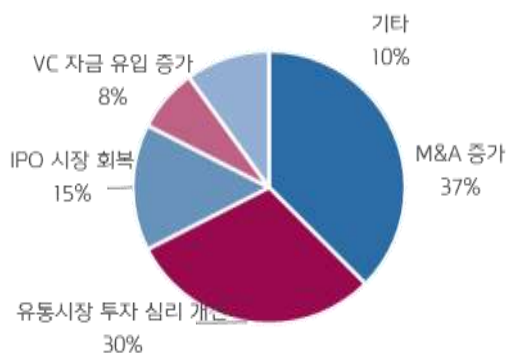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표적단백질분해는 TPD, TPD-ADC, TDC 등 포함. 이중항체에 이중항체 ADC 포함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제약/바이오 투자 확대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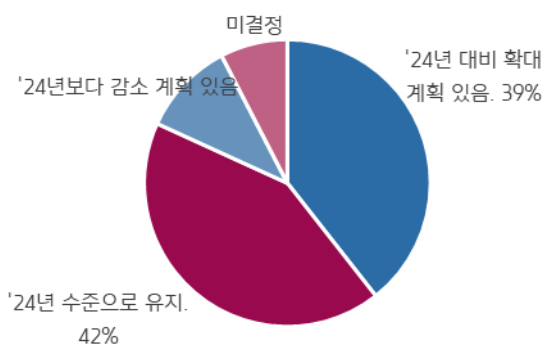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금융종사자 대상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투자 트렌드 가장 큰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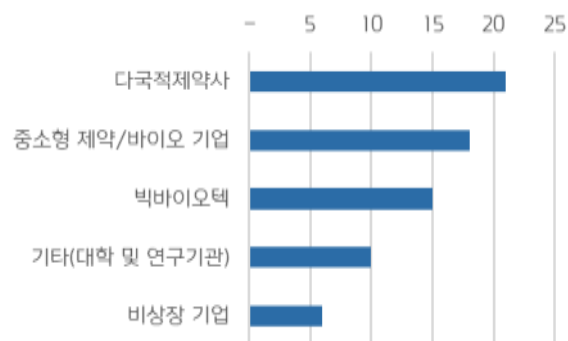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금융종사자 대상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R&D 투자 확대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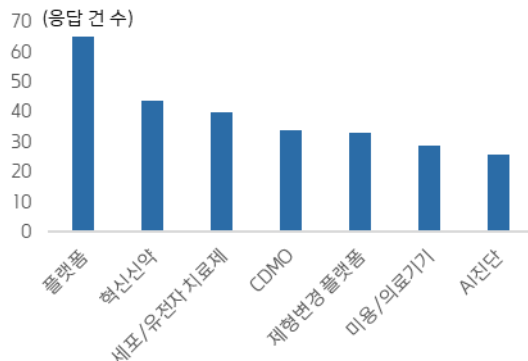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산업종사자 대상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기술 이전 논의 대상 해외 기업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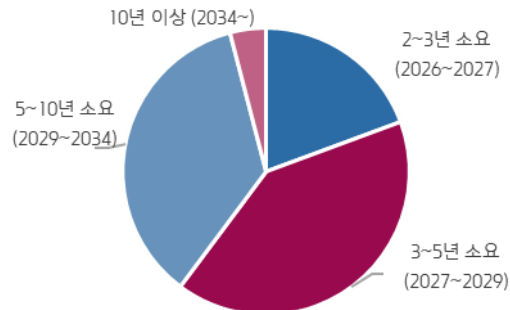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기술 이전 관련 종사자 대상. 다국적제약사(연 매출 최소 \$10bn+), 빅바이오텍(시가총액 최소 \$10bn+)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5년내 K-BIO에서 가장 크게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


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 플랫폼은 ADC, 이중항체, TPD 등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 제약/바이오 산업의 르네상스 시기 전망



조사기간: 2024/12/17~31. 응답자 103명.
자료: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31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